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1.97>

JCCT 2024-1-11

가족돌봄 제공자의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Family Care Providers'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centered on grandparents caring for grandchildren-

임안나* 박영숙**

Ahn Na, Lim* Young Suk, Park**

요약 본 연구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의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의 영향력이 20.1%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자본 중 가계 총소득과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손자녀에게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의 가계 총소득이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돌봄시간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길수록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가능성이 증가하는 요즘에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 요인을 시사하며, 가계 총소득, 건강상태와 돌봄시간이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가족돌봄, 조부모, 손자녀, 손자녀 돌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Abstract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8th main survey of the National Old Age Security Panel to find out the effect of grandparents' capital that provides family care for grandchildren on life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nfluence of capital of the study subjects on life satisfaction was 20.1%. Among the grandparents' capital, household gross income and health statu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household gross income of grandparents who provide family care to grandchildren and the better the health status, the higher lif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caring time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which means that the longer the time to care for grandchildren, the lower the life satisfaction of grandparents. These results suggest factors influencing grandparents' life satisfaction in these days when the likelihood of grandparents caring for grandchildren increases, and it was found that household gross income, health status, and caring time are major variables. Based on this, a plan was suggested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grandparents caring for grandchildren.

Key words : Family care, Grandparents, Grandchild, grandchild care, KReIS

*정희원, 광운대학교 글로벌교육센터 부교수(주저자)

**정희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대우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1월 21일, 수정완료일: 2023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10일

Received: November 21, 2023 / Revised: November 30, 2023

Accepted: December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profmimi@naver.com

Dept. of Cultural and artistic content , DongBangCulture Univdrity, Korea

1. 서론

현대사회는 경제성장과 가치관의 변화, 인권 향상 등으로 인하여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6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5.1%로 2011년 49.4%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취업여성은 2021년 2,606천명, 2022년 2,622천명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나고 있다. 맞벌이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5,675가구(45.0%), 2021년 5,826가구(45.9%), 2022년 5,846(46.1%)가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현재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남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이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제도 등은 현실을 따라 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핵가족화는 가정의 전통적인 기능인 돌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서 맞벌이 부부들은 출산과 양육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대수명도 2021년 83.6세로 보고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인의 기대 수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 수명의 증가와 정년 퇴직 그리고 자녀 양육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현재의 노인들은 삶의 질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특히 연구 대상자의 상당수가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교육 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높고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다. 이들의 성장한 자녀들은 많은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유연하지 않은 근무환경과 미비한 양육정책으로 인하여 자녀 출산과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부모들은 맞벌이 자녀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손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손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조모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조부모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과 자녀의 도움 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자신의 삶보다는 자녀들의 필요와 요구를 더 우선시 하다 보니 손자녀 돌봄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2]. 성인 자녀 역시 안전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가장 적절한 대상으로 조부모를 선호하고

있다[3]. 핵가족화 문화에 익숙한 성인 자녀 세대는 자녀 돌봄의 주 책임자는 부모이고 조부모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원한다. [3]의 연구에서 돌봄의 책임과 부담이 전적으로 조부모에 있지 않고 성인 자녀를 보조하는 형태의 돌봄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4]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조부모 응답자는 맞벌이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해 손자녀 돌봄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양육대가를 받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5]의 연구에서는 돌봄을 전일제로 하고있는 경우에 거의 반 정도는 자녀들로부터 물질적인 대가를 받고 있으며, 시간제인 경우에도 약 20%는 물질적인 대가를 받고 있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가족돌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해 왔고, 현대화된 지금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하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일은 조모(86.7%)가 담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 연령은 60대(81.8%)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조부모가 37.8%였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74.8%였고 경제적 상태는 91.6%,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73.2%가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6). 다른 연구에서는 조모의 평균 연령이 77.5세로 나타나 고령의 조모들도 손자녀 돌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7]. 손자녀 돌봄은 조부모의 노후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제공한다. 손자녀 돌봄은 자녀 양육과 치열한 삶에서 벗어나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조부모 세대에게 새로운 도전이며 부담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체력적으로 약해진 시기에 손자녀 돌봄은 조부모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과 일반 조모들을 대상으로 비교한 종단연구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은 우울감이 개선되지 않았다[7]. 매주, 매일 정기적으로 손자녀를 돌봐주는 고강도의 집단의 조모는 46.6%가 통증에 의한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우울증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건강, 경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8]. 그러나 [9]의 연구에서는 손자녀 돌봄이 우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도 있는데 조부모의 경제적인 수준이 낮고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손자녀 양육대가가 없고, 손자녀 돌봄으로 인하여 자신의 소득할

동이 중단되거나 단축한 경우에 자녀와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많았다[10]. [5]의 연구에서도 돌보는 기간이 장기일 경우 자녀와의 갈등이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강상태가 좋은 조부모들은 손자녀를 돌보기 전에 했던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어 스트레스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6]. 그리고 돌봄 기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가 높고, 돌봄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6]. 그러나 [5][11]의 연구에서는 돌봄 시간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결과와 [12][5].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11]는 결과가 혼재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11][12]. 이와 같은 결과는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도움이 손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4]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조부모의 61.7%가 자녀와 동거하면서 손자녀를 돌보고 있다. 동거가족인 자녀의 지지는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손자녀 돌봄을 통해 성인 자녀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고령화연구패널을 자료로 분석한 [7]의 연구에서는 조부모의 가구 총소득과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6][5]. 조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수준과 총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건강한 조부모일수록 손자녀를 돌보는 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손자녀 돌봄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9]. 이처럼 조부모는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보람, 행복감 등을 느끼며 위로를 받기도 한다. 또한 손자녀 돌봄을 통해 외로움을 느낄 시기에 자신의 존재가치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5]. 취업모 가정의 조모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는 손자녀 돌봄을 통해 자녀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쁘고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으며 손주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가족이 더욱

화목해져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2]. 또한 손자녀 돌봄이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4],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자녀 양육의 대체 및 보조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의 삶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돌봄 제공자인 조부모가 갖고 있는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본조사(2019) 개인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연금 및 노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2005년부터 격년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해당 가구의 50세 이상인 자와 그 배우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손자녀를 대상으로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50세 이상의 남녀 116명이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범위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하였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

1)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하위 변수로 경제에 대한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에 대한 삶의 만족도, 건강에 대한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각 삶의 만족도는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으로 구성되었다.

2) 독립변수

손자녀에게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의 자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동거 가구원 수, 가계 총소득, 건강상태, 돌봄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성은 “0”, 여성은 “1”로, 배우자 유무는 없음은 “0”, 있음은 “1”로 더미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 대학졸업 이상을 “0”으로 하여 3개의 더미변수를 만든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동거 가구원 수, 가계 총소득, 건강상태와 돌봄시간은 연속변수를 사용하였고, 교육수준은 평균값을,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 상태, 가족관계, 건강상태를 합한 후 평균값으로 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가족 돌봄 제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모두 116명으로 남성이 22명(19%), 여성이 94명(81%)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은 67명(57.8%)이었고 70대 이상이 28명(24.1%), 50대가 21명(18.1%)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55명(47.4%)이었고,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32명(27.6%), 중학교 졸업이 22명(19.0%), 대학 졸업 이상이 7명(6.0%)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86명(74.1%)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30명(25.9)였다.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다 43명(37.1%), 보통이다 41명(35.3%), 좋지 않은 편이다 23명(19.8%), 매우 좋다 6명(5.2%), 매우 좋지 않다 3명(2.6)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표 1과 같이 성별과 연령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hi^2=6.089$, $p=.048$ 로 나타나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성별과 연령은 응답 범주간에 연관성이 있었다. 성별과 교육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chi^2=6.201$, $p=.102$ 를 보여서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성별과 교육수준은 응

답 범주간에 연관성이 없었다. 성별과 배우자 유무를 분석한 결과는 $\chi^2=6.434$, $p=.011$ 로 나타나 대립가설이 채택되어서 성별과 배우자 유무는 응답 범주간에 연관성이 있었다. 성별과 건강상태를 교차분석한 결과 $\chi^2=4.999$, $p=.287$ 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성별과 건강상태는 응답 범주간에 연관성이 없었다. 남성은 60대가 15명(12.9%)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여성도 60대 가장 많은 52명(44.8%)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다. 교육수준에서는 남성 15명(12.9%)과 여성 40명(34.5%)으로 두 집단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남성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5명(4.3%)인 반면에 여성은 49명(44%)으로 저학력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보다 많았고 남성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성별과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있음이 남성은 21명(18.1%)이고 여성은 65명(56%)로 나타났다. 성별과 건강상태 연관성에서 남성은 보통이다와 좋은 편이다가 각각 8명(6.9)으로 13.8%의 비중을 나타냈다. 반면에 여성은 보통이다와 좋은 편이다가 각각 33명(28.4%), 35명(30.2%)으로 모두 58.6%의 비율을 보였다. 여성의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다 20명(17.2%)으로 남성 3명(2.6%)보다 많은 비

표 1.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

Table 1. Cross-analysis according to gender of survey subjects

변수	남	여	χ^2 (p)	
연령	50대	0(0)	21(12.9)	6.089*
	60대	15(12.9)	52(44.8)	
	70대 이상	7(6.0)	21(18.1)	
	계	22(19.0)	94(81.0)	
교육수준	초졸이하	3(2.6)	29(25.0)	6.201
	중졸	2(1.7)	20(19.0)	
	고졸	15(12.9)	40(34.5)	
	대졸이상	2(1.7)	5(4.3)	
계	22(19.0)	97(81.0)		
배우자 유무	있다	21(18.1)	65(56.0)	6.434*
	없다	1(9)	29(25.0)	
	계	22(19.0)	94(81.0)	
건강상태	매우 좋지않다	2(1.7)	1(9)	4.999
	중지않은 편이다	3(2.6)	20(17.2)	
	보통이다	8(6.9)	33(28.4)	
	좋은	8(6.9)	35(30.2)	

	편이다		
	매우 좋다	1(9)	5(4.3)
	계	22(19.0)	94(81.0)

*p<.05, **p<.01, ***p<.001, 괄호 안의 숫자는 빈도임
 중을 나타냈다.

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표 2와 같이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동거 가구원 수, 총소득, 총지출, 건강 상태, 돌봄 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총소득과 총지출이 $r=.521$, $p=.000$ 으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가구원수와 총소득이 $r=.449$, $p=.000$,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가 $r=.446$, $p=.000$ 의 순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에 성별과 배우자유무가 $r=-.236$, $p=.011$ 로 나타나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령과 삶의 만족도는 $r=-.230$, $p=.013$, 연령과 총지출 및 건강상태는 각각 $r=-.205$, $p=.027$ 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입력 방법은 입력(Enter)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F=3.892(p=.000)$ 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였다. 또한 $adj.R^2$ 이 .201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에 20.1%의 설명력을 보였다. 가계 총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계 총소득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6][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7][8]의 결과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다는 [9]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돌봄시간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6]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만 [5][10]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동거 가구원 수, 가계총지출, 본인이 생각하는 노후시작연령은 p 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표 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동거가 구원수	가계 총소득	가계 총지출	노후시작연령	건강 상태	돌봄 시간	삶의 만족도
성별	1										
연령	-.139	1									
교육 수준	.062	.061	1								
배우자 유무	-.236*	-.147	.016	1							
동거가 구원수	-.192**	.110	.207**	.226**	1						
가계 총소득	-.101	-.120	.038	.251**	.449***	1					
가계 총지출	-.190**	-.205**	-.006	.312***	.364***	.521***	1				
노후시작연령	-.052	.082	.037	-.003	.017	.033	-.063	1			
건강 상태	.047	-.205**	-.017	.210**	.025	.329***	.315**	.163*	1		
돌봄 시간	.231**	.008	.019	-.110	-.001	-.013	-.063	-.133	.011	1	
삶의 만족도	.037	-.230**	.030	.232**	.096	.304***	.239**	.121	.446***	-.097	1

$p^* < .01$, $p^{**} < .05$, $p^{***} < .001$

4.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손자녀를 대상으로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5][10][1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리고 동거가구원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4]의 연구와도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였다. 연령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경제적 자본을 살펴본 결과, adj.이

표 3.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Table 3.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TOL	VIF
	B	SE	β			
(상수)	2.655	1.075		2.469**	.825	1.212
성별	.108	.139	.071	.775	.856	1.168
연령	-.013	.009	-.125	-1.392	.938	1.066
교육수준	.070	.215	.028	.327	.818	1.222
배우자 유무	.145	.125	.107	1.162	.669	1.496
동거 가구원수	.006	.035	.018	.175	.606	1.651
가계 총소득	2.845E-6	.000	.144	1.348*	.613	1.632
가계 총지출	9.002E-8	.000	.004	.034	.770	1.299
노후시작연령	.220	.062	.337	3.546	.922	1.085
건강상태	.009	.013	.061	.707**	.920	1.086
돌봄시간	-.004	.004	-.095	-1.091*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F(p)	3.892***					
adj. R^2	.201					
Durbin-Watson n	1.960					

p* < 0.1, p** < 0.05, p*** < 0.01

Reference group: 성별*남성, 배우자유무*없음, 교육수준*대졸이상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손자녀를 대상으로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 1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과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을 하였고,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과 연령, 배우자 유무는 응답 범주간에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반면에 성별과 교육 수준, 건강상태는 응답 범주간에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동거 가구원 수, 가계 총소득, 가계 총지출, 본인이 생각하는 노후시작연령, 건강상태, 돌봄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 배우자 유무, 가계총소득, 가계 총지출,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중에서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가 정(+)적인 영향력이 가장

adj. R^2 이 .201로 나타나 영향력이 20.1%을 보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계 총소득과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손자녀에게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의 가계 총소득이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돌봄시간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길수록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노년기 조부모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당수의 조부모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조부모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육아조력자 돌봄 수당을 지급을 고려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조부모의 건강상태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이 필요하다. 손자녀 돌봄을 위해 외출이 어려우므로 찾아가는 건강 지원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돌봄시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는데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 가까운 곳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보육교사 파견 서비스가 있다면 조부모의 돌봄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Statistical Office, kostat.go.kr
- [2] E. J. Kim & S. D. Chung, A Study on the Adaptive Experience of a Grandmother Raising grandchildren: Focused on family with Working mother,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31, pp. 177-213, 2011.
- [3] E. J. Kim, The Influence of Caregiving Stress on Depression in Grandmothers Raising Infant Grandchildren in Double-Earner Households :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pousal Emotional Support, the Grandmother-Adult Parent Relationship, and Family Suppor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7, No. 2, pp. 25-48, 2012.
- [4] Y. J. Kang, The Psychosoci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the Role of Resources, type of Care and Perception of Caregiving,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34, No. 1, pp. 73-97, 2011.
- [5] M. R. Kim, A Study of the Effect of Grandparents' Caregiving of Grandchildren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Family and Culture*, Vol. 26, No. 1, pp. 178-204, 2014.
- [6] H. R. Park & S. H. Bae, Parental stress, Care-giving reward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Grandparents raising their Preschool Grandchildren, *Health & Nursing*, Vol. 32, No. 1, pp. 21-31, 2020.
- [7] S. N. Lee & H. S. Kim, A Longitudinal Study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mothers Caring and Non-caring Their Grandchildre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73, pp. 95-124, 2020. <http://dx.doi.org/10.15300/jew.2020.73.2.95>
- [8] K. H. Baek, Impact of Rearing Grandchildren on Women's Health - Physical and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Vo. 10, No. 2, pp. 87-112, 2009.
- [9] S. H. Nam, The Effect of Caring for Grandchildren on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for Older Adults in South Korea : Children Supports and Health as Mediator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41, No. 5, pp. 621-637, 2021.

<https://doi.org/10.31888/JKGS.2021.41.5.621>

- [10] M.h. Kim & K.o. Seong ·, K. h. Paeng, H. j. Choi, S. y. Choi, Factors Affecting the Conflict betwee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nd Adult Children: Focusing on Grandparents Characteristic,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1, No. 4, pp. 905-923, 2011.
- [11] X. Lin & S. Kim, The Economic · Physical · Psychological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Consumers According to Whether they Care for their Grandchildren,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Vol. 15, No.1,pp.53-79,2019.<http://dx.doi.org/10.15790/cope.2019.15.1.053>
- [12] A. N. Lim, A Study o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of Family Caregiv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Vol. 7, No. 3, pp. 140-145, 2018. <http://dx.doi.org/10.7236/IJASC.2018.7.3.140>
- [13] A. N. Lim & Y. S. Park, Effects of Advanced Middle-Aged People's Life Satisfaction on Elderly Life Commencement Age Awareness,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ACL GOVER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 29, No. 3, pp. 349-364, 2015.

※ 이 논문은 2023년도 광운대학교 특별연구 학기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